

具滋均의 국문학 연구, 그 의의와 과제

장 호 현*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고전소설에 대한 몇 가지 탁견 |
| 2. 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한 시각 | 5. 연구방법론의 당대적 위상과 현재적 과제 |
| 3. 평민문학의 개념 정의와 자료의 정리 | 6. 맺음말 |

국문초록

구자균은 온전한 형태의 ‘한국문학사’를 남기지는 못하였으나, 한국문학사 서술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고, 우리 문학사의 전개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 주었다. 그의 문학사 시대구분의 분기점은 왕조의 교체나 정치사회적 변환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학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18-19세기를 근대화가 내적으로 준비된 과정을 보여 준 ‘근세화과정’으로 보면서, 委巷人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문학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카프 문학의 등장과 해산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함으로써 평민 중심의 사관을 견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자균은 평민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많은 관련문헌을 섭렵하여 평민문학의 史的 구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張混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우리 문학의 근대화가 장훈과 같은 근세적 문인들의 성장 위에서 가능했던 것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구자균은 稗官文學의 보고인 『파한집·용재총화』와 고전소설 『춘향전』의 역주서를 남겨 주었거니와, 우리 고전소설에 관한 몇 가지 탁견을 제시해 주었다.

구자균의 학문적 위상은 동시대의 학자들과 비교된다. 조운제가 우파적 신민족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계급적 관념을 경시했다면, 김태준·이명선·구자균은 계급적 관념에 입각하여 민중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김태준은 “계급적인 것을 통해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한 반면, 이명선은 유물사관에 투철하여 우리의 문학사를 “계급적 모순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구자균은 근대 선행기의 평민문학의 역할에 주목하는 비급적인 민중사관을 보여 주었다.

주제어 : 구자균, 한국문학사, 근세화과정, 평민문학, 고전소설, 연구방법론

1. 머리말

구자균은 1912년 개성에서 출생하여 1936년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대구사범학교 敎諭로 취임하였다가, 1945년 해방 이후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1946년 보성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함으로써 고려대 문과대 교수가 되었고, 이 해에 창립된 ‘우리어문학회’와 ‘한글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였다. 1947년에 『朝鮮平民文學史』를 출간하였고, 공저로서 『國文學概說』(우리어문학회), 『國文精選』, 『朝鮮文化叢說』 등을 출간하였으며, 많은 논문과 논설, 수필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64년 11월 『파한집·용재총화』 역주본의 출간과 동시에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지훈은 구자균을 추모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구자균 선생은 초창기 國文學界 先驅者의 한 분이다. 저 日帝의 간악한 魔手가 民族文化를 송두리채 뽑으려던 세월에 國文學을 전공으로 택

했다는 사실부터가 민족문화에 대한 선생의 남다른 정성의 所致였으니, 끝내는 교단에서 전공의 과목을 잃고 뜻 아닌 일어와 영어를 가르치게 된 비통한 세상을 겪었기에 해방을 맞자 선생은 남다른 정열로 국문학 교육의 앞장에서 심혈을 경주하셨던 것이다.¹⁾

일제시대에 국문학을 택하여 전공한 구자균의 선구자적 정신과 민족문화에 대한 애정은, 조지훈의 이 글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前提로서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의 선구자적 정신과 민족문화에 대한 애정은 풍성한 학문적 성과를 유보한 채, 후학들에게 하나의 碑銘으로서 남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자균의 국문학 연구를 一瞥하고 그 학술적 의의와 남긴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한 시각

구자균은 축약된 형태의 「국문학사요」를 남기고 있을 뿐, 온전한 형태의 「한국문학사」를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문학사 서술에 대한 구자균의 관심은 그의 학문적 생애에 일관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한 국문학사 서술의 基底를 이루는 구자균의 두 개의 話頭는 ‘근대’와 ‘평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民族의 近代로의 발전에 대한 ‘명확한 시선’이 구자균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구자균은 「국문학의 근세화과정」에서, 국문학사의 시대구분과 그 근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1) 上古시대 ; 통일신라시대 이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비로소 민족적 통일, 언어의 통일이 결

1) 조지훈, 「발문」, 『국문학논고』, 박영사, 1966, 357쪽.

정적으로 이루어졌고, 儒佛道 삼교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으며 문화사적·문학사적 통일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한 까닭이다.”

2) 中古시대 ;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광종 때까지

“향기문학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현십원가>의 작자 균여대사가 임직한 것이 광종 때이고, 더욱 고려에 귀화해 온 중국 後周人 雙冀의 건의를 따라 科擧法을 실시한 것이 광종 9년이기 때문이다.”

3) 近古시대 ; 고려 광종 때로부터 훈민정음 반포 때까지

이 시대 “한문학은 이조때의 그것이 이른바 도문일치적인 도학과 문장이 범람하던 것과는 달라, 예문일치적인 사상과 문장이 우위성을 띠고 있어서 한문학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기라 할 것이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이르러 비로소 획기적인 문학사적 대변모를 가져오게 했음은 贅言을 不要한다”

4) 中世시대 ; 훈민정음 반포로부터 17세기말 즉 숙종 25년까지

“연대기적인 분기점에 의해 1700년을 基點으로 하여 그 이후를 근대화의 정상적인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물론 임진란과 병자란의 두 난리로 말미암아 평민이 각성하고 평민문학이 움트기 시작했다”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소지가 마련되었다 뿐이지 그것이 현상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에 들어와서 부터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5) 近世시대 ; 18세기 초부터 갑오경장(1894년)까지

“천주교와 서양문물이 선조·광해군 때부터 들어왔다 하는데 1759년(영조 34년) 경에는 황해도, 강원도 지방에 천주교가 만연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세 밑에서 숙종조를 계기로 하여 평민문학이 싹트고 영·정조를 계기로 하여 활짝 꽃이 핀 것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구자균은 이 글을 통해 한국문학사 시대구분의 명료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삼국통일에 이르러 민족적 통일과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진 것, 고려 광종 때에 과거법이 실시됨으로 해서 한문학이 발전하여 가장

뛰어나게 된 것,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함에 따라 획기적인 문학사의 대변모가 이루어진 것, 18세기 초로부터 평민문학이 활짝 꽃이 핀 것. 구자균은 이렇게 우리 문학사 전개와 주요한 분기점을 네 시기로 잡고 있는 것이다. 삼국의 언어적 통일, 고려 광종 시기로부터 비롯된 한자의 보편적 사용,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 18초 평민문학의 발흥. 구자균이 주목한 이 모든 기준이 왕조의 교체나 어떤 정치적·사회적 변환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학의 변화에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는 문학사 시대구분을 위한 유효한 관점으로서 현재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구자균이 제시한 문학사 시대 구분의 뛰어난 시각은,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문학사 서술이 뒷받침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겨 준다.

구자균은 18세기 초부터 갑오경장까지를 近代로 이어지는 途程의 ‘近世시대’로 보았는데, 특히 ‘素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근대의 자생적 토양을 역설했다.

흔히 갑오 이후의 근대화가 자기 전통에서 우러난 새 출발이 아니라 외국의 근대문학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전혀 거기 대한 기계적 모방으로서만 시작된 사실이라고들 논하거니와 나는 여기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 문학이 근세화과정을 밟아 내려오던 터전과 素地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문학은 그렇게나마 받아 들여와진 것이지²⁾

우리의 현대문학은 전연 아무런 전통과 素地(Tradition)가 없는데 歐美문학이 들어왔고 그 모방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전통을 전연 무시하려는 논자가 많은 듯하나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어떠한 형태로써든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紐帶的 關聯性을 밝히는 데 우리는 앞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

2) 구자균, 「근세적 문인 장흔에 대하여」, 『문리논집』, 7집, 고려대, 1963. (『국문학논고』, 41쪽.)

로 믿는다.³⁾

구자균은 18-19세기를 ‘근세화과정’이라고 불렀다. 이 과정은 구자균에 따르면, 서구문명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이 내적으로 준비된 과정, 이를테면 근대화의 先行期이다.

18세기 초부터 갑오경장(1894)까지의 대략 2세기 사이의 근대화의 선행기 즉 前近代化(pre-modernization)의 시기를 나는 근세화과정의 시기라고 명명하고 그러한 현상의 성격을 근세적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바이다.⁴⁾

그가 말한 근대화의 선행기, 즉 근세화 과정은, 서구의 역사학자들이 기존 3분법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초기 근대(Early modern)를 제기한 바 있던 완충적 모형이며, 조동일의 문학사 서술에 설정된 ‘근대이행기’에 해당한다.⁵⁾

구자균은 18-19세기 근대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사회적 요인을, ‘실학정신의 융성’, ‘천주교의 수입’, ‘동학사상의 팽창’으로 들었다.

“천주교의 만연은 양반들의 평민대중에 대한 중세기적 봉건억압에 대항하는 반항정신이 짙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천주교의 정신이 만민평등을 주장하여 양반 독재와는 단연코 상반되고 있는 까닭이다.”

“동학은 人乃天의 종지와 평민대중을 배경으로 한 그 운동의 모습이 발전될 때 이조말 양반지배계급과 전국의 유림들은 이를 가리켜 서학

3) 구자균, 「고전연구의 방법과 태도」, 『국문학』, 7집, 고려대, 1963. (『국문학논고』, 118쪽.)

4) 구자균, 「근세적 문인 장흔에 대하여」, 『국문학논고』, 28쪽.

5) 송희복, 『한국문학사론연구』, 문예출판사, 1995, 103쪽.

(천주교)에 유사한 이단으로 간주하여 마침내 제일세 교주 최제우는 참형에 처형당하고 말았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동학은 유·불·도 삼교와 기독교까지 합쳐서 이를 비판 종합함으로써 그 종지를 삼아 이 운동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촉진하는 불멸의 요소의 하나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국문학의 근대화에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바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대화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사회적 요인으로 實學정신을 주목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된 시각이기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天主教의 만민평등사상과 東學의 人乃天사상이 근대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비중 있게 서술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천주교는 18세기 후반에 南人 실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신앙의 형태로 정립된 이후 19세기의 백년만에 걸쳐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중인·평민·여성 등 소외된 계층에게 확산되어 갔다. 또 동학은 西學 즉 천주교에 대응되는 의미로서, 창시자인 최제우는 직접 천주님에게 계시를 받아 동학을 창시한다고 하였고 西教徒 즉 천주교도라는 罪名으로 잡혀 죽임을 당했다. 만민평등사상과 來世사상이라는 점에서 천주교와 동학은 상통하며,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소외된 계층에게 널리 수용되어 그들을 각성케 하였던 바, 구자균은 천주교와 동학의 이러한 면을 주목하여 “우리 국문학의 근대화에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바 있음”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구자균은 고전문학의 각 장르에 걸쳐 나타난 근세화 운동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형태로서 中世的 封建主義에 항거하고 인간성의 해방을 부르짖는 가운데 진화 또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세화의 현상은 갑오 이후의 근대화운동의 촉진제가 되었”는데, 특히 中人·庶孽·胥吏 등 委巷人의 문학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⁶⁾

이러한 관점은 근대화가 西歐文明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는 일

6) 구자균, 「국문학의 근세화과정」, 『국문학논고』, 75쪽.

련의 견해⁷⁾에 대한 反論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같은 구자균의 시각이 ‘내재적 발전론’의 테두리에 머물고 있는 한계는 분명한 것이겠지만, 국문학 연구 초창기에 先鞭을 취한 논의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자균은 현대문학사에 대한 서술에서도 자기 나름의 관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

구자균은 조선교육연구회의 기관지 『조선교육』에 「현대조선문학사강의」를 1947년 10월에 시작해 1949년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그가 저술한 우리어문학회 편 『국문학사』(1948)의 현대문학 부분과 서술 내용이 대체로 겹치나, 「현대조선문학사강의」의 그것이 한두 편씩 작품 줄거리를 요약하고 해설하는 등 서술 내용이 보다 풍부하다.

연재 1회와 2회분에서는 현대문학사에 대한 개관과 고전문학과 대비되는 현대문학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고, 본격적인 현대문학사 기술은 3회 연재에서부터 시작된다.

현대문학은 자연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실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고, 花朝月夕을 노래하기보다는 그날그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사회생활, 그것을 그려내고 탐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⁸⁾

구자균은 현대문학이 우리 인간의 실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날그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사회생활, 그것을 그려내고 탐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전문학이 ‘낭만주의’에 경도된 문학이라면, 현대문학은 ‘현실주의’에 철저한 문학이라고 본 것이다.

구자균은 현대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다음의 여섯 시기로 하여 그 특

7) 이러한 견해는 일제의 식민사관, 임화의 이식문화론, 그리고 근래의 식민지근대화론에까지 견고하게 이어져온다.

8) 구자균, 「현대조선문학사강의」, 제2회, 『조선교육』, 1947.12, 100쪽.

징을 서술하였다.

제1기(1894-1910) ‘신문학 태동기’에서는 갑오경장의 의의와 한계, 식민지화의 과정을 기술하고, 신소설 작가로서 이인직을 중요하게 다루고 이해조·최찬식·김교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2기(1910-1919) ‘신문학 발흥기’에서는 삼일운동에 이르는 민족적 각성에 대해 기술하고, 최남선의 신시와 이광수의 소설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3기(1920-1935) ‘기성문단과 신흥문단 대립기’의 서술은 카프 결성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4기(1936-1941) ‘순수문학기’에서는 『문장』 지 추천을 통해 등장한 신인들을 중심으로 순수문학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고 김동리의 작품을 예로 들었다.

제5기(1942-1945) ‘암흑기’에서는 일제의 억압상과 함께 문학사상의 친일문인 단체와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6기(1946-현재) ‘신출발기’에서는 해방 이후 이념 대립과 문단이 양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짧게 기술하였다.

이러한 전체적 서술 구도를 갖춘 구자균의 「현대조선문학사강의」는 제3기 ‘기성문단과 신흥문단 대립기’에 중점적 서술이 이루어져 6회에서부터 10회까지 이어진다. 1935년 카프 해산 무렵까지가 자세히 서술되고 있는 바, 이 시기 문학사에 대한 서술이 실제 문학사 서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 이후 시기는 마지막 10회 연재에서 한꺼번에 간략하게 기술되는 형편이다.

즉 구자균이 카프 문학의 등장과 해산을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카프의 결성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前期에서는 『창조』 등의 동인

지가 전 시기의 이광수의 낭만주의·이상주의를 떠나 현실적·회의적인 공통점을 지닌다고 지적하고,⁹⁾ 이어 김동인·염상섭·현진건·나도향의 문학을 서술하였다.

이리하여 창조·폐허·백조 세 문예잡지를 싸들고 이른바 창조파·폐허파·백조파라는 세 파로 나누어지고 각각 특수한 이채를 나타내라고 힘썼다. 이와 같이 분파는 되었으나 그들은 그 창작이념에 있어서 춘원시대의 낭만주의·이상주의를 떠나서 현실적이며, 회의적인 점에서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¹⁰⁾

後期는 다시 여섯 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경향파, 카프파, 동반작가, 기성문단 개관, 아동문학, 여류문학 등으로 구성하여 알려진 문인 대부분을 기록하였다. 특히 아동문학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해 방정환을 비롯해 아동작가들에 대해 기술한 점, 근대문학사의 한 특징이라고 할 여성문인들의 등장을 문학사에 반영한 점은 문학사가로서의 구자균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명희의 <林巨正>을 소개하면서 이광수의 <무정>, 이기영의 <고향>과 함께 근대문학사 장편 중의 雄篇이라고 기술하는 것처럼, 구자균은 자기 나름의 문학사적 가치평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¹¹⁾

이처럼 구자균은 우리 문학사의 전개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보여 주었던 바, 문학사 시대구분의 분기점이 왕조의 교체나 정치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학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9) 구자균은 앞서 제2기 서술에서도 이광수의 <무정>, <개척자> 등 초기 소설에는 의의를 부여하면서 후기 작품에는 <무명> 외에 좋은 작품이 없다고 평가하였고, 역사소설에 대해서는 그 봉건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그의 일제말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10) 구자균, 「현대조선문학사강의」, 제6회, 『조선교육』, 1948.8, 89쪽.

11) 전용호, 「해방기 국문학 연구와 근대문학사 인식-조윤제와 구자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 고려대, 2005, 251-255쪽.

18-19세기를 서구문명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이 근대화가 내적으로 준비된 과정을 보여 준 ‘근세화과정’으로 보면서, 그 요인으로 실학정신·천주교·동학사상을 주목했고, 문학에서 中人·庶孽·胥吏 등 委巷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문학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구자균은 카프 문학의 등장과 해산을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함으로써 평민 중심의 사관을 견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평민문학의 개념 정의와 자료의 정리

구자균이 이룬 가장 특기할 만한 학문적 성과는 『조선평민문학사』이다. 이것은 본래 1936년 경성제국대학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胥吏詩人を 중심으로 하여 본 近代委巷文學」으로서, 이를 改題하여 文潮社(1948)에서 출판하였고, 이후 杏林書院(1955)에서 재판을 간행하였다.

구자균은 그 ‘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 정신문화 유산 특히 그 일영역인 조선고전문학 속에서 지금까지 전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분야에 대하여 그 초기적인 재료 정리를 함과 함께 그 史의 體系를 세움으로써 朝鮮文學史를 보다 완전한 것이 되게 하여 보고자 하는 의도 밑에서 근대 平民의 문학활동 특히 역사적 系列 위에서 볼 수 있는 漢文學을 대상으로 하여 史의 概觀을 한 것이 이 小著이다.

문예현상은 결코 개인적인 자의의 산물이 아니고 일정한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생기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 평민의 문학활동을 살핍으로써 조선문학 叢史를 보충할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그들의 문학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사회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자는 文藝社會學의 방법을 응용하여 근대평민문학을 李朝 社會사 정치사 및 문화사와의 관련성을 중요시해 가면서 考究하고자 했다.¹²⁾

즉, 미개척 분야에 대한 자료 정리와 사적 체계를 꺾은 점, 문예사회의학의 방법을 응용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자균은 일찍이 1935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조선 고전문학의 계급적 관찰론」(1935. 11. 16-27)이라는, 평민문학 연구의 원형이 되는 논문을 통해 평민문학의 개념을 규정한 바 있다.

필자가 胥吏문학, 庶流문학, 中人문학, 여류문학, 승려문학을 총괄하며 현대적 어구인 평민문학이란 것으로 대표함은 어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그 외에 더 적절한 말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불가불 이에 평민문학이라고 호칭하기로 하였다. 물론 근세 사람들이 말한 위항문학이니 여항문학이니 하는 말이 있으나 우리들 현대인에게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取치 않기로 하였다.¹²⁾

이 글에서 구자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봉건 귀족 문학에 대응하여 형성된 胥吏문학, 庶流문학, 中人문학, 여류문학, 승려문학을 아울러서 평민문학으로 불렀다.

그 후 「조선평민문학사」에서는 특히 中人·庶孽·胥吏 계급의 문학을 다루면서, 이들의 문학을 평민문학으로 불렀다.

中人·庶孽·胥吏 계급을 고문헌에서는 주로 委巷人이라 칭하였거니와, 그들은 물론 常民·賤民보다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향수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최하급 관리로서 양반귀족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고 永世的 禁錮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상민·천민과 더불어 平民이라 지칭하여도 좋을 것이다.¹³⁾

그리고 서리계급, 중인계급, 서류계급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12)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서」, 송희복, 앞의 책, 99-100쪽, 재인용.

13) 구자균, 「조선고전문학의 계급적 관찰론(四)」, (조선일보, 1935. 11. 21)

14)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국문학논고』, 195쪽.

대한 역사적 개관¹⁵⁾을 한 후, 평민문학이 발전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1) 그들의 職業에서 기인한 것. 2) 숙종조 이후 문화보급에 따른 것. 3) 사대부 시인의 誘掖推輓의 세 가지를 들었다.

「조선평민문학사」의 중심부를 이루는 제3편 「시인 각론」에서는 모두 다섯 시기로 나누어 평민문학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제1기 ‘요람시대’에서는 洪裕孫(1431-1529)을 필두로 하여, 朴枝華, 徐起, 宋翼弼의 閭巷三儒家詩人, 劉希慶·白大鵬 등의 風月香徒시인, 崔奇男·南應琛·金孝一·崔大立·鄭柑壽 등 六家雜詠시인들을 다루었다.

제2기 ‘대두시대’는 숙종조로부터 영조 중기까지(1675-1745)로 잡았으며, 林俊元·石希璞·崔承太 등 7인의 洛社시인, 『海東遺珠』를 편찬한 洪世泰, 『昭代風謠』를 편찬한 高時彦, 그리고 鄭來僑·鄭敏僑·鄭後僑의 三鄭과, 黃宅厚·李彦瑱·金尙彩 등을 다루었다.

제3기 ‘전성시대(松石園詩社시대)’는 영조 중기로부터 순조 초기에 이르는(1746-1810) 시기로서, 송석원시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千壽慶·張混·趙秀三을 비롯하여 車佐一·朴允默·崔北 등등을 자세히 주목하였으며, 그 밖에 鄭樵夫와 몇몇 시인을 다루었다.

제4기 ‘小詩人群배출시대’는 순조조로부터 철종조까지로서(1810-1870년), 張混 문하의 시인 張之琬·張孝懋·金進洙 등과 ‘七松亭시사’ 시인 池錫觀·金羲齡 등, 그리고 鄭芝潤·李尙迪 등과 稷下社시인으로서 劉在建·趙熙龍 등을 다루었다.

제5기 ‘쇠퇴시대’는 고종조 이후로서, 이 시기에 속칭 ‘만리장성집’이라 불린 칠송정시사 2기 시인들과 崔瑄煥·崔漢綺, 그리고 일제시대의 崔永년에 이르기까지 다루었다.

구자균의 「조선평민문학사」는 4·6판 130쪽 남짓한 소책자에 불과한 저서여서, 그 논의가 깊이를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시인들의 생애·일화, 작품의 몇 특징과 윤곽 정도를 서술하는 것으

15) 위의 글, 196-203쪽.

로 일관함으로써 문학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¹⁶⁾ 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수집 섭렵한 문헌만도 평민시인의 시문집 41종, 사대부 시인의 시문집 36종, 가요집 4종, 전기 및 사적류 14종, 수필 및 野乘류 15종, 그 외 일인의 저서 2종, 도합 117종에 달하며, 그 중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자료를 처음 찾아내어서 햇빛을 보게 한 문헌도 있다”¹⁷⁾는 지적처럼, 수다한 관련문헌을 섭렵하고 평민문학의 대체적인 史的 구도를 제시한 점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구자균은 평민문학의 문인 가운데 특히 而已廣張混에 관심을 가져, 별도의 논문 「근세적 문인 장혼에 대하여」¹⁸⁾를 발표했다.

이 글에서 구자균은 장혼의 생애와 문학·학문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송석원시사를 이끌었고, 『풍요속선』을 간행하였으며, 『兒戲原覽』 등을 저술 간행하여 아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초연자약한 태도로 평민사상을 고취했던 장혼의 면모를 다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그가 일찍이 「조선평민문학사」에서 세웠던 뼈대에 이제 그 섬세한 윤곽을 잡아 나가는 연구의 한 본보기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논문을 발표한 지 1년 후 구자균은 세상을 떠남으로써, 「조선평민문학사」의 각론에 대한 보완작업은 오직 장혼에 관한 논문 한 편으로 그치고 말았다.

구자균은 이 논문의 결어 부분에서, 장혼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흔히 갑오 이후의 근대화가 자기 전통에서 우러난 새 출발이 아니라

16) 박노준, 「1930년대 시가문학사연구의 두 성과-조선시가사강과 조선평민문학사」, 『한국학논집』 21·22, 한양대, 1992, p.83.

17) 위의 글, pp.71-72.

18) 『문리논집』 7집, 고려대, 1963.

외국의 근대문학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전혀 거기 대한 기계적 모방으로서만 시작된 사실이라고들 논하거니와 나는 여기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 문학이 근세화과정을 밟아 내려오던 터전과 素地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문학은 그렇게나마 받아 들여와진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의 근대화는 일례를 들어 장훈과 같은 근세적 문인들의 釀成한 素地 위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究明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국문학 근대화의 여명이었던 것이다. 근대화 초기의 두드러진 담당자인 육당 최남선이 중인 출신이요, 춘원 이광수가 不可赴學의 대상이었던 西關 출신이란 점은 과연 우연한 일에 그칠 것인가, 그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이나 아닐는지.¹⁹⁾

즉, 우리 문학의 근대화는 외국의 근대문학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기계적 모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장훈과 같은 근세적 문인들의 釀成한 素地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국문학의 근세화과정」에서 그 논의의 外延을 넓혀 간다.

구자균은 이처럼 평민문학에 대한 자료 정리와 사적 체계, 그리고 그 시인 각론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지켜 오면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論旨가 갖는 허점에 대한 성찰 또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언제나 느끼는 일이지만 지난 학기의 내 강의들에 대한 불만과 반성이 또다시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른다. 평민문학·서민문학이라고 하지만 평민이 쓴 문학이라는 것 곧 작자가 평민이란 점만을 가지고 평민문학이라고 규정해도 좋은 것일까. 귀족·양반이 쓴 문학도 평민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그 반면에 평민이 쓴 문학 가운데도 귀족적인 성격을 띤 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 내 강의의 根底부터가 뒤흔들리는 懷疑가 떠오른다. 「평민문학론」 강의 노트를 들추며 오늘따라 불만과

19) 구자균, 「근세적 문인 장훈에 대하여」, 『국문학논고』, 41쪽.

부끄러움이 내 마음을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한다.²⁰⁾

이처럼 구자균은 처음 胥吏문학, 庶流문학, 中人문학, 여류문학, 승려문학을 아울러서 평민문학으로 부르다가 「조선평민문학사」에 이르러서는 중인·서얼·서리 계급의 문학으로 범위를 좁혀 평민문학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계급의 구성에 대한 역사적 개관, 평민문학이 발전하게 된 원인, 시대별 시인 각론을 기술하면서, 구자균은 많은 관련문헌을 섭렵하여 평민문학의 史的 구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張混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우리 문학의 근대화가 장훈과 같은 근세적 문인들의 성장위에서 가능했던 것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구자균이 수행한 평민문학 연구는 학계에서 한동안 한글문학 중심의 연구 풍토 속에서 가리워져 있다가 1970년대 이후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委巷문학(閭巷문학) 혹은 中人문학 연구로 심화되었다.

4. 고전소설에 대한 몇 가지 탁견

구자균은 고전소설의 연원이 되는 이른바 稗官文學의 보고인 『과한집·용재총화』와 고전소설 『춘향전』의 역주서를 남기고 있기도 하거니와, 몇몇 論考에서 우리 고전소설에 관한 주요한 탁견을 제시해 주었다.

구자균은 <玉樓夢>의 문헌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별적인 論考를 통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현존 1913년(大正 2년) 박학서원판 南廷懿 저로 되어 있는 국문본 고대소설 「옥련몽」(옥련몽 5책 20권)의 「서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20) 구자균, 「교단일지」, 『국문학논고』, 148-149쪽.

있다. (...) 따라서 남정희는 1913년에는 생존해 있어 고대소설 옥련몽을 편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조부 되는 潭樵公이 天台山人의 설과 같이 南九萬의 오대손인 南永魯라면 남영로도 기껏해서 前記「서언」에도 있듯이 70여년전인 1840년대를 더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천태산인은 어찌해서 증보소설사에서 남영로라 함을 인정하면서 구운몽 직후의 작품으로 보았는지……. 그 뒤의 소설사에서는 모두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을 뿐 아니라, 김기동씨의 이조시대소설론에 부록되어 있는 이조소설일람표와 신기형씨의 한국소설발달사에 부록되어 있는 고대소설총람에서는 한결같이 옥루몽과 옥련몽이 속종대 남영로 작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²¹⁾

한문본 옥련몽은 도대체 보지도 못하였고 그 존재 여부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터인지라, 지금까지로는(옥련몽 한문본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玉蓮子가 17세기경에 지은 한문본 <옥루몽>을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한 국문본 <옥루몽>도 그 뒤에 나왔고, 또 19세기로 내려와서 前述한 바 있듯이 1840년대에 남영로가 <옥루몽>을 국역할 때에 약간 간략화한 것을 그 손자 남정희가 얻어서 1913년에 고대소설 <옥련몽>이란 제호를 붙여서 간행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단하는 바이다.²²⁾

구자균은 활자본 한문본 <옥루몽>을 읽고, 또 1913년간 박학서원본 한글본 <옥련몽>의 서문을 확인한 토대 위에서, <옥련몽>과 <옥루몽>을 속종대 남영로의 작으로 기술한 기존의 설을 비판하고, 자신의 推見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 이후 일련의 문헌학적인 고증을 통해,²³⁾ 구자균의 견해도 착오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옥루몽>의 문헌학적 연구를 촉발시킨 연구사적 의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精細한 것은 아니지

21) 구자균, 「옥루몽을 통해서 본 소설사의 문제점」, 『민족문화연구』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국문학논고』. 17쪽.)

22) 위의 글, 20쪽.

23) 차용주, 「옥루몽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65. / 성현경, 「옥련몽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69. / 장효현, 「옥루몽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1.

만, <옥루몽>과 한·중 소설 비교의 관점도 이 논문을 통해 단초가 제시되었다.

구자균은 또한 「춘향전고」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인물형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선진적 의의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도령은 한낱 평범한 인물이었을까. 양반을 대표하는 하나의 연애지상주의자, 이른바 풍류 남아였을까.”²⁴⁾라고 질문하면서 제기한 이도령에 대한 그의 새로운 관점은 근래의 <춘향전> 연구에서²⁵⁾ 다시금 주목되어 재론되었다.

양반은 처첩을 여럿 거느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고, 명예로 여겼던 당시 사회에서 친출 여인을 정실 부인으로 삼는 것은 큰 수치로 쳤고, 가정에서의 반역자시 당하였던 시대에 있어서, 吏曹參議大司成이 된 이도령은 천기 출신 춘향으로 하여금 정렬 부인을 삼고 백년 동락한다는 happy end로써 끝 막았으니 이도령 역시 새 시대를 창조하려는 진취적인 정신에 불탔던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²⁶⁾

구자균은 또한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에 대한 장르 규정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해 주었다. 조윤제의 『한국문학사』에 대한 서평 가운데에서, 조윤제가 <계축일기>와 <인현왕후전>을 宮廷記事體로 본 후,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도 이러한 궁정기사체의 계통을 받은 일기문의 범주 속에 넣는 견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궁정소설 또는 內簡體小說로 보고자 하는 입장을 제시한다.

궁정기사체라는 것이 하나의 문학 genre로서 인정되기엔 모호하기 짝이 없고, 또 <한중록>같은 것은 그 문장의 구성 등으로 보아서 궁정 기사체나 일기문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소설문학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24) 구자균, 「춘향전고」, 『학술계』, 1권 1호. (『국문학논고』. 78쪽.)

25) 정출현,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 신동훈,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판소리의 주제」, 『판소리연구』 6, 판소리학회, 1995.

26) 구자균, 「춘향전고」 (『국문학논고』. 78-80쪽.)

수 없을지니 『국문학전사』 등에서 궁정소설 또는 內簡體小說이란 genre로서 규정지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현왕후전>은 궁정 기사체요, <한중록>은 일기문이라고 규정한 한계성은 어디에 두었는지 불분명하다.²⁷⁾

구자균은 稗官文學의 보고인 『파한집·용재총화』와 고전소설 『춘향전』의 역주서를 학계에 남기면서, 이처럼 우리 고전소설에 관한 몇 가지 탁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옥루몽>의 문헌학적 연구와 <옥루몽>과 한·중 소설 비교의 단초를 제시한 그의 관점은 이후 학계에서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해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으며, <춘향전>에서의 이도령의 형상을 ‘진취적’인 인물로 해석한 그의 관점 또한 근래의 <춘향전> 연구에서 다시금 주목되어 재론되었다. 또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를 宮廷記事體로 본 견해를 부정하고 궁정소설 또는 內簡體小說로 보고자 한 그의 관점은 현재 이 분야의 장르론 논의에서 유력한 한 축을 구성한다. 宮廷實記로 보느냐 宮廷小說로 보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장르론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5. 연구방법론의 당대적 위상과 현재적 과제

1936년에 평민문학에 관한 논문으로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고 해방후에 본격적으로 국문학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구자균의 학문적 위상을 살핌에 있어서, 동시대의 이능화·안화과 같은 국학과와 학자와 조운제·김태준·이명선과 같은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과의 대비는 유효한 시야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구자균은 조운제의 『한국문학사』를 평하는 자리에서, 自山 安廓의 『조

27) 구자균, 「서평(조운제, 한국문학사)」, 『아세아연구』 13호, 고려대, 1964, (『국문학논고』, 130-131쪽.)

전문학사』에 대하여 “8·15 해방 전인 1922년 4월에 上梓되었으나 현재로서는 骨董品的 존재로 化해 버렸으니 論外로”²⁸⁾ 한다고 언명하였다. 구자균의 이러한 언급처럼 안확과 같은 국학과의 학자들은 이른바 ‘과학적 학문 연구’로 훈련된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에 의해 경시되었다.

안확(1886-1946)과 李能和(1868-1944)의 국학은 함께 ‘지식주의적 계몽사학’으로 불린다.²⁹⁾ 그런데 같은 지식주의적 계몽사학에 들면서도, 이능화가 편년체의 통사식 서술로서 동양의 전통적 역사서술방식을 추종한 반면, 안확은 참신한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그 서술방식이 새로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확과 이능화는 다른 국학자와 마찬가지로, 實學에서 싹튼 국학적 경향을 계승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그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이 식민지적 상황의 사회구조적 변혁까지도 의미한다고 생각한 ‘진보파적 민족주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보수파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말한다.³⁰⁾

안확과 같은 국학자와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 사이에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안확과 조운제의 연구방법이 ‘민족해방과 관련된 정신사관적 방법론’과 ‘경성제대의 실증주의 방법론’의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이를 잘 보여 준다.

1920년대 말부터 등장한 경성제대 출신의 학자들 - 조운제 김태준 김재철 이명선 구자균 등 - 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교육받은 일세대로서 일본인 학자들을 통해 전수받은 近代 文獻學의 실증주의 방법론을 정착시켰다.³¹⁾ 이들이 식민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학에 뜻을 두었

28) 위의 글, 123쪽.

29) 이기백, 「국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I - 학술·종교·사상사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6, 157-162쪽.

30) 진덕규, 「식민지 지식인의 사회구조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연관성에 대한 분석 논리(1)」, 『현상과 인식』, 13호, 1980.

31) 정병욱, 「고전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 조동일, 「국문학 연구 30년의 자취」, 『우리 문학과 의 만남』, 흥성사, 1980. / 김홍규, 「국문학연구방법론과 그 이념기반의 재검토」, 『문학과 지성』 38, 1979.

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깊은 것이고, 실제 이들이 ‘과학적 학문연구’를 통해 국학의 제 방면에 다대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이른바 ‘과학적 학문연구’라는 자부심을 피력하면서 국학과의 성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였다. 그러나 국학과의 성과에 대해 무관심을 표시한 것과는 달리, 이들이 다룬 실증적 자료의 많은 부분이 안확과 같은 국학자의 발굴 작업에 기초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경성제대를 졸업한 국문학자들 사이에도 그 사관과 방법론은 일정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조운제가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우파적 신민족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계급적 관념, 심지어 민중의 개념까지도 경시했다면, 김태준·이명선·구자균은 계급적 관념에 입각하여 민중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김태준은 “계급적인 것을 통해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³²⁾을 의도한 반면, 이명선은 유물사관에 투철하여 우리의 문학사를 “계급적 모순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³³⁾ 했으며, 구자균은 근대 선행기의 평민문학의 역할에 주목하는 비급적인 민중사관을 보여 주었다.

구자균은 특히 조운제의 『한국문학사』(1963)에 대한 「서평」³⁴⁾을 쓴 일이 있어, 이를 통해 조운제와 달리하는 구자균의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다. 구자균은 조운제의 『한국문학사』가 1949년간 『국문학사』를 新增改修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編史정신, 문학사의 방법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바는 거의 없다”³⁵⁾고 언급했다. 구자균에게 있어서 조운제 『한국문학사』의 장점은 “삶의 연속체로서 파악되었다는 점”³⁶⁾, “일관성 없는 자료의 나열이 아닌 점”³⁷⁾으로 요약된다.

32) 박희병, 「천태산인의 국문학연구(하)」, 『민족문학사연구』 4, 창작과 비평사, 1993, 218쪽.

33) 고미숙, 「이명선의 국문학연구방법론과 유물사관」, 『어문논집』 28, 고려대, 1989.

34) 『아세아연구』 13호, 1964.

35) 구자균, 「서평(조운제, 한국문학사)」, 『국문학논고』, 12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자균은 조윤제의 『한국문학사』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문학사를 “애국적인 견지에서 서술”해 나감으로써 “각 시대에 발표된 여러 작품에 대해서 예리한 문학적 비판을 시도하지 않고 덮어 놓고 최고봉이다 絶品이다 하고 찬양하기에 바빴다”는 점.

둘째, 문체에 있어서 “저자의 남달리 고집이 센 자신만만한 성격이 이 문체에도 나타나 있어 억세고 이론에 승하다”는 점.

셋째, 문학사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파악하려고 하였는데, ‘潛動’ ‘發展’ ‘反省’ ‘運動’ ‘維新’ ‘再建’ 등의 용어가 섞여 “생명체의 발전과는 동떨어진” 느낌으로서 表題用語에 모호성을 노출한 점.

넷째, 사실의 나열이 중심이 되고 작품들에 대한 깊이 파고 들어간 가치평가가 결여되어 있어 國學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教養書로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문가에게 맞는 진일보한 저술은 못 된다는 점.

다섯째, 近世의 기점을 임병양란에 두고 있으나, 숙종조 18세기초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여섯째, 『殊異傳』 편자에 대한 견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진학자의 새로운 설을 참고하지 않은 점.

일곱째, “8·15해방 이후의 감격을 말하여 ‘그리고 시들어 가던 국문학에도 다시 생명수가 드리워졌다.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고서 자작의 ‘拙詩 一篇’을 싣고 있”는데, “이러한 지나친 정열은 科學하는 사람으로서는 忌諱하는 바”라는 점.

즉 조윤제의 『한국문학사』가 엄정한 가치평가에 바탕을 둔 ‘과학적 학문연구’의 결실이기보다는, 곳곳에서 연구자의 애국심과 정열에 압도되고 있거나, 개념과 고증의 모호함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36) 위의 글, 127쪽.

37) 위의 글, 128쪽.

근래에 김명호는 조운제의 학문에 대하여 “일정한 사관에 입각한 국문학사의 체계적 설명 및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실증주의적 문학사료와 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으면서도 개별작가 및 작품에 있어서는 서지적 전기적 주석과 내용의 소개에 머물고 만”³⁸⁾ 것이라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 바 있는데, 구자균의 비판은 그 선편을 취한 것이라고 하겠다. 구자균의 이러한 비판을 “조운제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학문에 대한 자긍심”³⁹⁾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구자균의 학문적 위상을 살피기 위해 동시대의 국학파의 학자들과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과 대비해 보았다. 구자균이 安廓의 『조선문학사』에 대해 ‘骨董品的 존재라고 언급한 것처럼, 국학파의 학자들은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에 의해 경시되었다. 안학과 조운제의 연구방법이 ‘민족해방과 관련된 정신사관적 방법론’과 ‘경성제대의 실증주의 방법론’의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처럼, 국학자와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 사이에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경성제대를 졸업한 국문학자들 사이에도 그 사관과 방법론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조운제가 우파적 신민족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계급적 관념을 경시했다면, 김태준·이명선·구자균은 계급적 관념에 입각하여 민중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김태준은 “계급적인 것을 통해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한 반면, 이명선은 유물사관에 투철하여 우리의 문학사를 “계급적 모순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구자균은 근대 선행기의 평민문학의 역할에 주목하는 비급적인 민중사관을 보여 주었다.

안학과 같은 국학자에게서 ‘정신사관 속에 내재된 현실적 운동성’⁴⁰⁾을, 조운제에게서 ‘일정한 사관에 입각한 국문학사의 체계적 설명’을, 김태준에게서 ‘계급적인 것을 통해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는’ 태도를 평가

38) 김명호, 「조운제의 민족사관에 대한 신고찰」, 『한국학보』 10, 일지사, 1978, 89쪽.

39) 송희복, 『한국문학사론연구』, 문예출판사, 1995, 109쪽.

40) 류준필, 「자산 안학의 국학사상과 문학사관」, 『자산안학국학논저집』 6권, 여강출판사, 1994, 168-169쪽.

할 수 있다면, 구자균에게서는 ‘풍부한 문헌 섭렵과 역사적 실체에 대한 접근’의 ‘과학적 학문연구’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시대와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국학파의 학자들과 경성제대 출신 국문학자들의 여러 입장의 상호보완 및 변증법적 발전의 定向이 현재의 학계의 상황에서도 필요한 과제임을 생각하게 된다.

6. 맺음말

이상에서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구자균은 온전한 형태의 ‘한국문학사’를 남기지는 못하였으나, 한국문학사 서술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고, 우리 문학사의 전개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 주었다. 그의 문학사 시대구분의 분기점은 왕조의 교체나 정치사회적 변환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학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18-19세기를 근대화가 내적으로 준비된 과정을 보여 준 ‘근세화과정’으로 보면서, 委巷人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문학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카프 문학의 등장과 해산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함으로써 평민 중심의 사관을 견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자균은 평민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많은 관련문헌을 섭렵하여 평민문학의 史的 구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張混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우리 문학의 근대화가 장훈과 같은 근세적 문인들의 성장 위에서 가능했던 것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구자균은 稗官文學의 보고인 『과한집·용재총화』와 고전소설 『춘향전』의 역주서를 남겨 주었거니와, 우리 고전소설에 관한 몇 가지 탁견을 제시해 주었다.

구자균의 학문적 위상은 동시대의 학자들과 비교된다. 조운제가 우파적 신민족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계급적 관념을 경시했다면, 김태준·이

명선·구자균은 계급적 관념에 입각하여 민중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김태준은 “계급적인 것을 통해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한 반면, 이명선은 유물사관에 투철하여 우리의 문학사를 “계급적 모순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구자균은 근대 선행기의 평민문학의 역할에 주목하는 비급적인 민중사관을 보여 주었다.

안확과 같은 국학자에게서 ‘정신사관 속에 내재된 현실적 운동성’을, 조운제에게서 ‘일정한 사관에 입각한 국문학사의 체계적 설명’을, 김태준에게서 ‘계급적인 것을 통해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는’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면, 구자균에게서는 ‘풍부한 문헌 섭렵과 역사적 실체에 대한 접근’의 ‘과학적 학문연구’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52세라는 짧은 생애로 인해 보다 풍성한 결과를 남기지는 못하였으나, 구자균이 보여준 선구자적 정신과 민족문화에 대한 애정, 광범한 자료의 섭렵과 선진적인 분석의 시각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학문적 태도임을 상기하게 된다.

참고문헌

- 구자균, 『국문학논고』, 박영사, 1966.
- 구자균, 「현대조선문학사상의」, 『조선교육』 6~16호, 1947.10~1949.5.
- 고미숙, 「이명선의 국문학연구방법론과 유물사관」, 『어문논집』 28, 고려대, 1989, 1-29쪽.
- 김명호, 「조운제의 민족사관에 대한 신고찰」, 『한국학보』 10, 일지사, 1978, 63-90쪽.
- 김홍규, 「국문학 연구방법론과 그 이념기반의 재검토」, 『문학과 지성』 36호, 1979, 1246-1257쪽.
- 류준필, 「자산 안확의 국학사상과 문학사관」, 『자산안확국학논저집』 6권, 여강출판사, 1994, 101-172쪽.
- 박노준, 「1930년대 시가문학사연구의 두 성과 - 조선시가사강과 조선평민문학사」, 『한국학논집』 21·22합집, 한양대, 1992, 55-92쪽.
- 박성의, 「고 구자균 박사의 학문」, 『어문논집』 14·15합집, 1973, 13-20쪽.
- 박희병, 「천태산인의 국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4, 창작과 비평사, 1993, 248-283쪽, 166-218쪽.
- 소재영, 「一梧선생의 삶과 학문」, 『어문논집』 33집, 고려대, 1994, 7-13쪽.
- 송희복, 『한국문학사론연구』, 문예출판사, 1995.
- 이기백, 「국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I - 학술·종교·사상사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6.
- 장효현, 「이능화의 국학」, 『어문논집』 26집, 고려대, 1985, 771-786면.
- 장효현, 「안자산 국학의 성과와 학문정신」, 『민족문학사연구』 6, 창작과 비평사, 1994, 296-304쪽.
- 전용호, 「해방기 국문학 연구와 근대문학사 인식 - 조운제와 구자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집, 고려대, 2005, 235-259쪽.

정병욱, 「고전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조동일, 「국문학 연구 30년의 자취」, 『우리 문학과와의 만남』, 홍성사, 1980.

진덕규, 「식민지 지식인의 사회구조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연관성에 대한 분석논리(1)」, 『현상과 인식』 13호, 1980.

<Abstract>

On the Study of Korean Literature by Gu, Jagyun

Chang, Hyo-Hyun

Gu, Jagyun(1912-1964) had been interested in the writing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roughout his life even though he had not left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perfect formation. I consider that his principal topics were 'modernity' and 'commoner' in the writing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Gu called from 18th to 19th century 'a modernization process'. He grasped that modernization movement in each genre of classic literature spontaneously developed during resisting against medieval feudalism and advocating human nature. Therefore he concluded that middle people, the illegitimate births and petty clerks, these commoners' literature did a important role. His view had the pioneer significance, because it was the first objection to the opinion of modernization under the Western civilization's influence.

Gu's most important academic achievement is *Joseon Pyeongmin Munhaksa*(The History of Commoner's Literature in Joseon). It is valued that the historical framework of commoner's literature was presented by using the method of literary sociology after having read through numerous literatures.

Gu, Jagyun left annotated editions of *Pahanjip · Yongjaechonghwa* and *Chunhyangjeon*. In some studies, he showed distinguished views

about classical novels. He first raised doubts on the philological matter of “Okrumong” and sowed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iterature between Korean and Chinese novel through “Okrumong”. And he interpreted that Chunhyang and Yidoryeong had ‘the forward-looking spirit that tried to create new era’ and emphasized its futuristic meaning. Moreover, he regarded “Gyechukilgi”, “Inhyeonwanghujeon” and “Hanjungrok” as court novel or letters between women style-novel against Jo, Yunje’s opinion that those works were court descriptive style or diaries.

Key Words : Gu, Jagyun,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modernization process, commoners’ literature,
classical novels